현불 논단

코로나와 그릇된 신앙



방영준 교수
성신여대 명예교수

코로나19 재확산… 대유행 조짐
두 번의 확산 중심에 '교회' 있어
개신교계 '비대면 예배'도 거부해

코로나 재난, 종교 역할 상기시켜
종교 · 이데올로기 쌍생아적 관계
잘못된 믿음의 노예, 공공적 재앙

'정교분리' 는 계몽 · 근대화 산물
정치 주체 공공선 유도 종교역할
불교, '깨달음 사회화' 고민 해야

이를 어쩌랴. 코로나 재난이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다시 기승이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니 그 끝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이런 코로나 재난의 확산에 종교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코로나19의 1차 확산지인 대구 · 경북 지역은 신천지 교회가 전파의 온상이었고, 이번 수도권 지역 확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정부가 가짜 통계로 방역 실패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방역 독재를 한다고 비난하면서 국무총리 등 방역 당국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비대면 예배' 를 종교 탄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재난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특히 종교의 '믿음' 문제와 '정치와 종교의 관계' 이다. 인간의 삶의 모습은 다양한 믿음의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믿음 체계는 개인과 사회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쌍생아적 관계는 믿음의 강제와 믿음의 마술에 있다. 잘못된 믿음의 덫에 걸릴 때 사람들은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은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믿음에 대한 성찰적 자세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런데 믿음은 신화적인 성격이 강해 자신의 믿음과 자기 종교집단의 신앙 체계를 성찰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믿음의 마술에서 벗어난 종교가 있다. 바로 불교이다. 기독교가 절대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면 불교는 상대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 불교 교리의 핵심은 연기론으로 상대성의 원리 위에 불교의 사상과 실천의 체계를 구축한다. 불교의 믿음 체계는 '주체적 믿음' 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며 수행을 통해 얻어지고 확인된다. 그만큼 주체적 믿음은 자기 성찰적이다.

다음으로 종교와 정치의 관계다. 전광훈 목사의 행적은 여느 정치인 못지않게 정치적이었다. 정당을 만들기도 했고, 장로 대통령을 만든다고 앞장 선 사람이다. 정교분리의 개념은 계몽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온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현실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하나의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종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여기에 종교의 정치철학적 과제의 중요성이 등장한다. 즉 정치현상과 정치권력을 윤리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치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체제와 정치 구성원이 공동선을 추구하게 하여 행복한 정치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화중생(下化衆生)이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한국사회에 있어 갈등의 큰 씨앗은 이데올로기와 종교이다. 그리고 그 둘의 모습은 너무 닮았다. 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종교는 상실하였고, 오히려 종교가 이념의 역기능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 재난은 종교의 존재 양식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 전후의 종교 존재 양식은 근원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 종교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그리고 종래의 믿음 위주의 종교 기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연기론적 틀에서 보면 당연한 변화다. 1990년대 이후 '깨달음의 사회화' 라는 용어가 불교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서' 살아 숨 쉬는 것이어야 한다. 코로나 재난의 흙탕물 늪에서 어떻게 연꽃을 피울 것인가?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 소식은 이웃나라까지 알려졌습니다. 하루는 빔비사라왕이 숲 속에서 명상에 잠겨있는 싯다르타를 찾아왔습니다.

"태자처럼 젊고 기품 있는 사람이 사문이 되어 고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이오. 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나 싯다르타 태자는 "저는 이미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몸"이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빔비사라왕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이 있어 출가를 하셨소?"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내 자신과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소?"

"되고 안 되고는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저는 죽어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싯다르타 태자는 6년의 고행 끝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었고, 부처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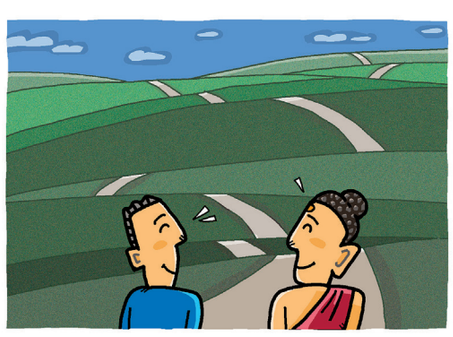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람들아 원력을 가져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용기를 잃지 말라. 바라던 목적을 성취한 지금의 나를 보라. 사람들아 원력을 가져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용기를 잃지 말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해안에 도달한 나를 보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비록 역경에 처했더라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는 말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피안에 도달한 나를 보라. 명 선장은 거센 파도에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한 인생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이라도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인생을 포기해 버립니다. 천하의 명검도 쇳덩어리를 수없이 연마한 끝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쉬지 않고 연마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는 부처님의 목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세우지 않은 목표입니다. 부처님의 도전에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지만, 불퇴전의 정신으로 정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아무리 말해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노력해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노력은 괴로움을 없애줍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보편적 승가복지가 종단 미래 근간

조계종 승려복지제도가 시행 10년만에 완전히 안착됐다는 평가다. 올해 처음으로 전종도 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각의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시행 첫 달만에 83%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면서 모든 우려가 불식됐다.

기본부담금 제도의 기본 골자는 승려복지 수혜대상인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기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종도 차원의 참여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매월 5000원에서 1만원 수준이지만 모든 종도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시스템인만큼,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행 한달만에 대부분의 종도가 가입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성과라는 평가와 함께, 조계종 스님들의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뢰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8225명이 기본부담금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 중 납부를 완료한 스님은 총 8006명에 이른다. 해외교구 등 연장 접수된 2차분 집계가 완료될 경우 총 신청인원은 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부담금 제도의 성과는 곧 향후 조계종 승려복지제도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드러내는 지표일 수 있다. 전종도의 참여로 탄탄해진 재정적 토대는 종단의 숙원과제였던 '출가부터 열반까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의 현실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편적 승가복지는 나아가 조계종 스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수행 · 포교에 매진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조계종 승려복지제도가 발전을 거듭해 양질의 승가복지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종단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사업으로 우뚝 서길 발원한다.

한국 밀교연구 활성화 토대되길

밀교는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불교문화 전반에, 또 전통불교의식의 근간에 밀교문화가 자리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 밀교문화의 모든 것을 망라한 〈한국밀교문화총람〉 발간 소식이 더없이 반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분야든 탄탄한 기초자료는 모든 심화연구의 첫발이 되기 때문이다.

진각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일부를 지원받아 한국 밀교의 문화와 역사, 이론 등 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정리해 〈한국밀교문화총람〉으로 탄생시켰다. 그야말로 밀교의 이론적 · 문화적 · 교리적 자료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집필진만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발간 목록은 29종 34권에 달한다.

무엇보다 국내외에 분산된 밀교 관련 일체의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향후 밀교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진언과 만다라, 경전 문헌과 의식 등을 총망라해, 그동안 한국불교계에서도 연구범위가 넓지 않았던 밀교연구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견인하는 토대가 될 것이란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밀교종단 진각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례로 진각종이 2018년 복원해 재현했던 '문두루법' 이 대표적이다. 관련 자료가 총체적으로 수록된 자료집이 총람에 포함되면서 그 의미와 가치가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종단 차원에서 '문두루법' 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밀교문화총람〉 발간이 한국불교계 이면에 자리한 밀교의 참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세계 붓다 평화 봉사상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0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불기 2564년은 중국 우환에서부터 전파된 코비드19바이러스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는 액난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에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라 칭 하는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신뢰, 존중하고 화합, 단결하는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 보다는 매사 긍정적이고, 불신보다는 화합의 포용과 미소로 함께 나누는 사회를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이름도 富도 名譽도 없지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수행자로 먹물 옷이 부끄럽지 않게 봉사와 헌신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중생들에 지팡이가 되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불제자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알리고 함께 동참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몸소 실천하는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행원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위 모르게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미소를 안겨주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 세상 모든 분들의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추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 제출서류 및 안내 ◈◈
제출서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1통, 이력서 1통, 사진 1매 내외 ※ 본 협회에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후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자 격 승가 및 재가자로 불심이 돈독한 분
접 수 일 2020년 9월 30일(수) 까지
제 출 처 (우)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TEL 02-733-5665 / H·P 010-5229-6061 moktakno1@hanmail.net
시 상 식 2020년 12월 16일(수) 수상자 200명 훈장(메달)과 수훈패
장 소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
총 회 장 미얀마연방정부승가회 회장(세계불교도들의법왕)우꾸마라종정큰스님
총부회장 불교수호협회회장 및 세계불교법왕청 사무국장 우킨쉐이
회 장 목탁 대승정
대회장, 총괄 공동본부장 혜정 · 진성, 조직 본부장, 심사 공동위원장 심오 · 현담, 의전 본부장,
의전1원장 김재은, 의전2원장 이정희
심사위원 승가심사위원 혜정, 진성, 도광, 심오, 현담, 법운, 송운, 혜광, 상운, 대공, 대도, 백련
재가자심사위원 김재은, 고동욱회장, 명지민, 박정의회장, 이정희, 정영숙, 상미옥,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김명옥, 김영춘, 모미숙, 송윤서, 박정하, 이은송, 이양순
※ 초청장을 지참한 VIP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원 지정 좌석제 실시) ※ 초청자 명단에 없이 격려차 참석하신 분들은 정중히 행사장 입장 사절합니다.

추천된 대상 시상자들에게 서류 접수비 및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은 본 협회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주최 및 주관 국제붓다 평화 자비봉사단, 대한민국 나라사랑 협의회,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선불교조계종, 외교법인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 미얀마관광청 한국대표부, 미얀마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양곤 흘라잉따야 구쑤빠웅용 동네따까마-14번지)
협 찬 현대불교신문사